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

- 피해여성의 경험은 무엇인가? -*

김 주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장 수 미

(청주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 현상과 그 피해의 심각화 및 만성화에 주목하여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당한 여성(이하: 음주폭력피해여성)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10명의 음주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성과 관계성을 고려하여 혼전 음주폭력 몰이해단계, 음주폭력 피해와 대처단계, 음주폭력 휴지기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혼전 음주폭력 몰이해 단계에서는 상위구성요소로서 '음주폭력문제를 간과함'이 나타났다. 음주폭력 피해와 대처단계에서는 '음주폭력의 악순환에 갇힘'과 '지역사회에서 음주폭력을 다룸'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음주폭력 휴지기 단계에서는 '관계 재정립'의 의미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 음주폭력피해여성,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 본 논문은 2010년도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으며(연구보고: 2010-34, 11-1383000-0000588-01), 2011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1. 서론

가정폭력은 근절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피해자와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최근의 선행연구 및 관련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가정폭력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만성화하는데 음주문제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국내 조사에서는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가 1위(김승권·조애저, 1998), 3위(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7)로 보고되면서 가정폭력과 음주문제 간의 높은 관련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조사에서도 Gondolf(1999)는 50%, Roy(1982)는 70%, Gilchrist et al.(2003)는 73%, Brokoff et al.(1997)는 92% 등으로 동시발생률¹⁾이 발표되어, 가정폭력과 음주문제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Chermack and Giancola, 1997; Peralta et al., 2010).

이와 같은 가정폭력과 음주문제 간의 관련성이 시사하는 것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대다수가 폭력 자체의 피해와 음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이 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가 가정폭력의 횡수가 더 빈번하며, 폭력의 결과도 심각한 상해, 사망 등에 이르게 하는 등 더 치명적이며, 폭력이 더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Tjaden and Thoennes, 2000; Graham et al., 2004). Thompson과 Kingree(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가해남성의 알코올 사용은 피해여성의 알코올 사용 정도를 통제한 후에도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하였다(장수미, 2008 재인용).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살해한 남성은, 배우자를 학대하지만 살해하지 않는 남성보다 약물을 남용하거나 매일 술 취해있기 쉽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사용이 배우자 살해의 명백한 위험요인임을 밝힌 것이다(Roberts, 2007).

가정폭력과 음주문제라는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와 실천현장에서는 이들 간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며, 서비스 체계도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개입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유채영, 2002; 장수미, 2004; 조성민, 2009), 피해자 측면에서 음주폭력의 동시피해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남편이 알코올중독인 경우 학대받는 아내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김재엽, 1995; 김혜련·조영희, 2000)와 최근 노인의 음주문제와 부부폭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두 문제의 공존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현진희(2010)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그동안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에 대한 동시개입, 음주폭력이 발생하는 가

1)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co-occurrence)이란 가정폭력의 발생 전 혹은 발생 당시 가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가정폭력 행동과 음주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때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음주문제는 AUDIT(알코올 사용장애검사)에 의해 문제음주자임이 선별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족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 논의가 제한적으로는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음주폭력피해여성을 초점으로 한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개입은 가정폭력과 음주로 인한 피해를 이분화하여 분리된 서비스 체계²⁾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와는 달리 국외에서는 음주폭력피해여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도출³⁾하였고(Bernnett and Williams, 2003), 특히,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폭력과정동안 술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Galvani, 2006)도 시행된 바 있다. O'Farrell과 Murphy(1995)는 알코올중독자 가족프로그램에서 개입 전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음주문제뿐 아니라 부부폭력에 대한 사정을 언급함으로써, 음주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실천적 개입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학문적 관심과 달리 실제로 실천현장에서는 가정폭력과 음주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대부분 의뢰 서비스에 그치고 있음이 비판되기도 하였다(RADAR, 2009).

이상의 국내외 문헌고찰과 실천현장의 실태를 종합해보면, 음주폭력피해여성은 폭력피해여성에 비해 극단적인 신체적 폭력피해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주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마련이 부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알코올분야라는 두 가지 전문영역 간의 관심 및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문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음주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개입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폭력 행동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음주폭력피해여성의 관점에서 이들의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의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 현황

가정폭력의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음주가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에서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중 1위가 남편의 술버릇(29%)이라고 보고하였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01)에서 발표한 상담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에

2) 현재 국내에서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음주문제는 전문병원 및 알코올상담센터 등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3) Edgerton(1969)의 학습된 탈억제이론, Parnanen(1991)의 인지왜곡이론, MacAndrew & Taylor and Chermack(1993), Robert(1996)의 탈억제이론, Miller et al.(1997)의 일탈부정이론, Plant et al.(2002)의 생심리사회이론 등이 있다.

의한 가정폭력이 48%로 나타났고, 조미숙(2002)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 중 51.4%가 알코올중독으로 선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100명 중 47명은 남편이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29명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보고되었다(박소현·김병진, 2002).

국외 실태조사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가정폭력 사건의 1/2이 행위자나 피해자의 음주상태에서 발생하였고(Pernanen, 1991), 남성가정폭력행위자의 1/4~1/2이 물질남용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onard and Jacob, 1987; Gondolf, 1995; 유채영, 2008 재인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부폭력 피해 노인들의 절반에서 행위자가 알코올 또는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Rennison and Rand, 2003; 현진희, 2010 재인용). 이와 같이 국내·외의 축적된 연구결과를 통해 음주가 관련된 가정폭력 발생률이 일관되게 높은 수치로 보고되고 있어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2)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으로 인한 피해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은 피해여성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피해와 상해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살해당하는 것, 살해하는 것보다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음주를 동반한 폭력은 비음주상태의 폭력보다 강도나 빈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가정폭력 및 알코올상담기관에 의뢰된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날보다 술을 마신 날에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위험성이 11배나 높았다(Fals-Stewart, 2003). 폭력 당시 음주상태인 남성은 비음주 남성에게 비해 더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1996). 캐나다의 가정폭력 조사에 의하면, 남편에게 음주문제가 없는 경우보다 음주문제가 있는 남편과 동거할 경우, 5배 이상 폭력을 당하기 쉽다고 하였다(Rodgers, 1994). 국내연구에서도 알코올중독자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폭력을 가할 비율이 83.3%로 나타나(윤명숙, 1988), 폭력과 동시에 음주문제가 있는 남편과 동거하는 여성에게서 신체적 폭력피해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신체적 폭력피해에서 더 나아가 음주폭력이 살해와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가정폭력 관련 살인에 관한 법 의학자료에서는 용의자의 70%가 범행현장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었다고 보고되었다.”(Slade et al., 1991; 장수미, 2008 재인용). 2003~2004년 사이에 발생한 파트너 살해의 76%가 알코올과 가정폭력 두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uzos, 2005).

음주폭력피해여성들의 배우자 살해에 대한 연구에서는 “살인죄로 감옥에 있는 여성들의 1/3이 배우자를 살해하였는데 남성이 가정폭력과정에서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반해, 여성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때 행위자 및 피해자의 약물남용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약물남용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였다(Humphreys et al., 2005). 따라서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은 결국 배우자 살해를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가 폭력피해에 대한 대처로써 행위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문제를 동반한 가정폭력의 영향은 정신건강에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보고가 있

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동시발생이, 둘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보다 정신건강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현진희(2010)는 노인배우자의 음주문제와 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배우자가 음주문제만 존재하는 경우는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배우자가 음주문제와 폭력이 함께 존재할 경우 음주문제와 폭력이 모두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중독자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아내는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정신적·재정적 부담과 함께 구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까지 떠안게 된다. 그러므로 학대받는 알코올 중독자 부인이 겪는 고통은 술 문제는 없지만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부인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인들이 겪는 고통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있다(김혜련·조영희, 2000).

한편 음주폭력피해여성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Galvani(2006)는 20명의 음주폭력피해여성을 심층인터뷰 함으로써 여성의 관점에서 폭력 과정에서의 알코올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피해여성들은 폭력을 알코올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남성에게 폭력행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배우자의 폭력에서 알코올의 역할이 무엇이든, 대다수의 여성은 폭력에 대해 알코올은 핑계거리 일뿐이며, 배우자 스스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실지, 술을 마시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음주폭력피해여성의 경험은 음주가 동반되지 않은 폭력피해여성의 경험과 다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알코올중독자의 부인에게서 나타나는 단편적 특성만을 이해하기보다 가정폭력과 음주문제 동시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험을 통합적,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에 대한 사회적 개입

가정폭력과 음주문제 간의 높은 관련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 실태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미비하다. 그동안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에 대한 동시접근은 주로 음주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먼저 법적인 접근을 살펴보면, 가정폭력특례법상에서 폭력행위자의 음주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감호위탁과 치료위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음주폭력행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알코올에 대한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절차 및 비용부담으로 인해 피해여성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보호처분 불이행 시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김현아, 2000; 김현희, 2006 재인용).

음주폭력문제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의 실천적 접근을 보면 국외의 경우, 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개입이 활발한 편이다. 이제까지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주로 가정폭력기관에서 여권주의모델과 인지행동모델 등을 활용하여 그 효과성이 보고되어왔으나(Sanders, 1996), 음주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에 동기증진치료를 활용하여 알코올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추세이다(Easton

et al., 2000; Traft et al., 2001). 국내에서도 음주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이 두 가지 모델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보고한 연구가 있으나(유채영, 2002; 장수미 2004),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알코올치료기관에서는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음주문제뿐 아니라 부부폭력에 대해 사정함으로써(O'Farrell and Murphy, 1995),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부부단위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가정폭력기관에서 행위자의 음주문제에 초점을 맞춘 개입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에 대한 사회적 대처는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문제는 가정폭력영역에서, 음주문제는 알코올관련 영역에서 별도로 개입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개입은 상호 의뢰하도록 제안되고 있으나 의뢰가 활발하지는 않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가정폭력기관에서는 피해여성의 안전을, 알코올치료기관에서는 가해남성의 단주를 목표로 하므로 기관 간 우선순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음주문제를 직선적인 인과관계의 관점이 아닌 상호순환적인 관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Leonard and Quigley, 1999; Wormer, 2007), 실천현장에서는 가정폭력기관과 알코올기관이 여권주의 대 질병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협력적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아직까지 음주폭력행위자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단계로서, 음주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음주폭력행동의 교정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변화뿐 아니라 피해여성의 인식과 대처의 변화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음주폭력이 발생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폭력피해여성의 관점에서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음주문제 동시발생으로 인한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전략과 제도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방법

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음주폭력피해여성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은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방법”(Morse and Field, 1995; Anderson, 1991; 신경림 역, 1997; 신경림 외 역, 2001 재인용)으로 질적 연구의 한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폭력피해여성들의 삶의 세계를 주요 자료원(sources)으로 하여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제시하여 경험의 기본구조를 밝히고 경험이 갖고 있는 충분한 의미를 탐색하고자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Giorgi 연구방법⁴⁾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Giorgi의

연구방법이 대상자의 언어를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하여 체험의 일반적 의미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음주폭력피해여성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학문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인 음주문제를 가진 배우자⁵⁾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는 가정폭력과 음주문제 동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20세 이상의 기혼여성으로 선정하였다. 가정폭력보호시설 관련 단체 또는 가정폭력보호시설 실무자에게 연구참여자 의뢰를 요청하여 피해여성을 소개받았다. 교육수준, 경제적인 능력유무, 혼인/이혼수속 중, 연령대(30, 40, 50대) 등 가급적 상이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갖춘 피해여성 1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의 범위에 있으며 20대 1명, 30대 3명, 40대 4명, 50대 2명이다. 현재 남편과 혼인 중이면서 동거 중 참여자는 2명이며, 별거 중은 3명, 이혼상태는 5명이다. 폭력피해기간은 3-5년 1명, 5-10년 4명, 10-20년 4명, 20년 이상이 1명이다. 어린 시절 폭력피해 경험은 참여자 중 2인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배우자의 경우, 6명이 폭력 피해경험을 갖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2명, 고졸 5명, 대졸 3명으로 다양하게 선정되었다. 본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는 8명, 나머지 2명은 직업이 없으며, 남편은 6명은 무직상태이고 4명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가 자녀가 있었고 자녀의 연령대는 다양하였다.

4) Giorgi 연구방법은 Husserl과 Merleau-Ponty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기술적 현상학으로 해석학적 현상학과는 달리 해석이전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고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술(description)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5) 배우자의 음주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당시 AUDIT(알코올사용장애검사)를 사용하여 배우자의 문제음주 정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심각한 알코올의존상태로 나타났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징

참여자	연령 (만)	결혼 상태	폭력 피해 기간	어린시절 폭력 피해 경험 (부모·형제·친척에 의한)	학력	직업(근무형태)	자녀
참여자 A	본인:20대 남편:30대	별 거	3-5년	본인: 신체적폭력 남편: 신체적폭력	본인:중졸 남편:전문대졸	본인:없음 남편:무직	1남(3세) 1녀(4세)
참여자 B	본인:40대 남편:40대	이 혼	10-20 년	본인: 없음 남편: 언어적폭력	본인:고졸 남편:대졸	본인:베이비시터 남편:자영업	1남(16세) 1녀(13세)
참여자 C	본인:50대 남편:50대	혼 인	10-20 년	본인: 없음 남편: 없음	본인:중졸 남편:중졸	본인:보험설계사 남편:건설업	1남(29세) 2녀(27세, 18세)
참여자 D	본인:40대 남편:40대	이 혼	5-10년	본인: 없음 남편: 없음	본인:대졸 남편:고졸	본인:사무직 남편: 무직	2녀(16세, 13세)
참여자 E	본인:50대 남편:50대	혼 인	20년 이상	본인: 신체적폭력 남편: 신체·언어폭력	본인:고졸 남편:전문대졸	본인:가내수공업 남편:학원강사	1남(27세) 1녀(30세)
참여자 F	본인:30대 남편:30대	별 거	5-10년	본인: 없음 남편: 성폭력	본인:대졸 남편:대학중퇴	본인:회사원 남편:자영업	1남(8세)
참여자 G	본인:40대 남편:50대	이 혼	14년	본인:없음 남편: 신체폭력	본인:고졸 남편:대학원졸	본인: 양재업 남편:무직	1녀(17세)
참여자 H	본인:30대 남편:30대	이 혼	7년	본인: 없음 남편: 없음	본인:고졸 남편:고졸	본인:간호조무사 남편:무직	2남(10세, 4세)
참여자 I	본인:40대 남편:40대	이 혼	10년 이상	본인: 없음 남편: 신체폭력	본인:대졸 남편:대졸	본인:학원강사 남편:무직	2녀(13세, 10세)
참여자 J	본인:30대 남편:40대	별 거	5년 이상	본인: 없음 남편: 모름	본인:고졸 남편:중졸	본인: 무직 남편: 무직	1녀(13세) 1남(3세)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음주폭력피해여성을 참여자로 선정한 후 심층면담을 통해 진행하였다. 면접은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총 3개월이 소요되었다. 다양한 배경⁶⁾을 가진 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자별로 면담횟수는 1회에서 2회까지 진행하여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포화시켰다. 초기의 면접질문은 '남편이 음주상태에서 폭력 행동을 할 때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면접을 위해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s)를 개발하여 '폭력발생과정에서 술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음주

6) 분석과정에서 이론적 포화를 위해서 중요한 변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피해여성을 선정하였다.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비음주폭력피해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본인의 음주습관은 어떠한가?', '음주와 폭력이 동시발생하는 과정의 전후가 어떠한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의뢰된 대부분의 피해여성이 남편의 음주상태의 폭력과 비음주상태의 폭력 피해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음주상태의 폭력피해와 비음주상태의 폭력피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뷰에서 피해 당시 남편의 음주여부를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해여성 본인의 음주문제여부에 대해서도 측정도구에 대한 질의와 직접 질문한 결과, 현재 모두 음주문제수준은 아니었으며 그 중 2명은 과거에 남편의 음주폭력에 대한 대처로서 음주하였지만 남편의 음주문제에 압도되어 금주하고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사전에 연구참여동의서를 통해 언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다. 인터뷰 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참여자의 경우, 인터뷰가 끝난 후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였다.

녹취된 자료를 Giorgi가 제시한 다음의 4단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상학적 판단중지 상태에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를 인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의미단위를 구별하였다. 그 결과 763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미단위를 조합하여 주제화한 후 연구현상에 중점을 두고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을 통해 중심의미(focal meaning)를 학문적 용어로 변경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변형된 의미단위들을 경험구조의 일관성이 있는 진술로 통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경험의 구조가 참여자의 경험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연구자 2인이 확인하였고, 의견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간 혹은 선행연구 결과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논의하였고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대한 사실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2인에게 보여주고 이를 반영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의미단위로 구분하고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은 음주폭력 피해와 대처에 관한 경험구조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4개 상위구성요소와 18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나타났다.

〈표 2〉 ‘음주문제와 가정폭력의 동시발생으로 인한 피해 경험’의 구성요소

상위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음주폭력문제를 간과함	음주폭력문제를 경시함
	음주폭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음주폭력문제를 알아채지 못함
음주폭력의 악순환에 간힘	극단적 음주폭력의 피해자가 됨
	수동적 대처로 귀결함
	수발자 역할을 함
	음주상태 행동은 진짜 남편이 아님
	고사(枯死)되어감
지역사회에서 음주폭력 다룸	음주치료를 도모하기 버거움
	사회적 보호를 적극 활용함
	음주 자체가 폭력으로 느껴짐
	음주폭력 패턴 조성을 깨달음
	사회적 도움으로 내가 변화됨
관계 재정립	남편이 폭력행동 자제함
	음주폭력 재발을 예상함
	자신의 욕구에 초점 둬
	남편은 관계유지만 관심 둬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버둥거림

1) 혼전 음주폭력 몰이해단계

(1) 음주폭력문제를 간과함

참여자들은 배우자에게 음주를 동반한 폭력행위가 혼전부터 존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배우자의 음주문제나 폭력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각성을 간과했다고 회고하였다. 혼전에 남편이 철저히 문제를 감춰왔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했거나 음주폭력 사건으로 직접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편적인 슬버릇으로 치부하거나 음주폭력 행동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결혼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혼전 음주폭력 몰이해단계의 음주폭력문제 간과함에서는 하위구성요소로 ‘음주폭력문제를 경시함’, ‘음주폭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음주폭력문제를 알아채지 못함’이 도출되었다.

① 음주폭력문제를 경시함

참여자들은 혼전에 직접적인 피해경험을 통해서, 결혼 후 남편의 과거이야기가 드러나면서 남편의 음주문제와 폭력문제가 혼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혼전에 남편의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했지만 참여자 C와 F는 성장과정에서 친부의 음주 시 폭력행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엄마가 그렇게 사시고 아버지한테 폭력을 시달리셨어도 작은 아버지... 많이 감싸주시고 또.. 너무

못 살게 하면은 작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셔다가 이렇게 숨겨도 주시고 막 그러셔서...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참여자C>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런 정황적으로 봤을 때 애(남편)는 술 주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아버지보다 심한 게 아니니까... <참여자F>

② 음주폭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

혼전에는 남편의 음주 시 폭력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술버릇이라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F는 한국사회의 술 문화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의 행동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성격적인 특성으로 이해하였고 참여자의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혼할 때 정말 남자는 술버릇이 좋거나 술을 완전히 안 먹기에는 한국 사회가 좀 그러니까 즐기지 않거나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을 만난다고... 술을 좀 받는 편이라서 같이 먹어 봤는데 어... 제가 잘 판단을 못 했던 거 같아요. (남편이) 칠 남매에 막내였기 때문에 좀 어리고 그래서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케 좀 다혈질에 약간 폭력적인... (남편이) 그런 자기는 다혈질이지만 뒤끝이 없어 이러는 걸 갖다가... (괜히들 그런다고...)(중략) 내가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하고 이 사람의 어느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참, 괜찮질 않을까.....<참여자F>

③ 음주폭력 문제를 알아채지 못함

이미 혼전에 남편의 음주폭력문제가 존재했으나 참여자들은 알 수 없었다. 참여자 B, D는 남편이 혼전에 결혼하기 위해서 음주폭력문제를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여자는 혼전에 음주폭력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만나면 성실한 모습만 보여서 잘 몰랐던 거예요.<참여자B>

같이 만날 때는 무수하게 포장을 많이 하고 참고, 저랑 결혼하려고 그랬었던 모양이더라고요.<참여자D>

2) 음주폭력피해와 대처단계

(1) 음주폭력의 악순환에 갇힘

참여자들은 결혼 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상식을 초월한 형태로 발생하는 음주폭력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음주를 동반한 폭력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추가 음주로 인해 더 위험한 폭력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점 수동적인 대처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음주폭력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을 뒷수습하였다. 음주폭력피해 초기에 참여자들은 음주를 동반한 폭력행위가 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음주폭력 행동을 하는 모습은 남편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반복되는 음주폭력으로 불안, 공포, 소진을 경험하면서 참여자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다. 음주폭력의 악순환에 갇힘에서 하위구성요소는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

다.

① 극단적 음주폭력의 피해자가 됨

참여자들은 남편의 음주상태의 폭력이 죽음을 연상케 하는 공포스런 상황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남편이 술 마시고 자해를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공포이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종의 폭력이었다. 남편은 폭력의 수단으로 칼, 가스 등의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고, 죽이거나 자살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음주폭력 후 성폭력을 행사하였다. 참여자들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난 후 달래주기 위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문 다 닫아요, 그리고 저런데 다 잠가요, 그리고 막 이 라이타 이렇게 이렇게 불 해요, 이거 해서 불내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일회용 그 가스 가지고 막 와 가지고 폭발시킨다고 불 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진짜로 막.. 그 눈 이상하게 뜨고 이거 이렇게 라이타 막... 불 키고 그런 적은 있죠, 실제로.<참여자E>

제가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것도 작년에 그랬던 거 같은데 아~ 그날도 술 먹고 아이들은 자고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술을 먹고 본인이 또 혼자서 또 죽을려구 핵대로 목을 졸라매고 그러다가(헛웃음).<참여자D>

칼을 들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벌벌 떨면서도 그러면서 이거를 드는 거는 정말 배를 갈라서라도 내 마음을...보여주고 싶다는 무슨 퍼포먼스 같은 그런 행위라는.. 얘기더러구요.<참여자F>

이런 술 먹는 사람들은 꼭 때리고 나면 자꾸 성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그 날 저녁에, “넌 내 손을 떠날 수 없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또 그러니까 본인은 해결이 된 거예요.<참여자B>

술과 폭력이 며칠 동안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음주폭력을 심화시키고, 지속시켜 괴롭힘을 당했다. 술과 폭력이 연결될 때는 괴롭힘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며칠에 걸쳐 이어져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남편이 만취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웃고 있거나, 술만 먹으면 자살시도를 하는 등의 행위는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이 의심될 정도였다.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잠이 들어요, 밤새 그렇게 하고 새벽에 잠이 들고 저는 아침에 또 추스르고 회사를 나가고, 나가고 나서 저녁에 들어오면? 또 저녁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이틀 반 동안은 계속 그렇게 밤마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 무섭더러구요.<참여자D>

술 먹고 아파트단지에서 넘어졌는데 얼굴에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게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저를 때린 거보다 더 무서웠어요, 완전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진짜로. 아~~ 이 병이.<참여자B>

② 수동적 대처로 귀결함

참여자들의 경험상 음주상태의 폭력은 극단적인 형태를 띠므로 상황을 모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점차 수동적 대처를 취하게 되었다. 음주폭력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인 방법으로 대처해 보았으나 음주폭력은 반복되었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대처 후에 되돌아올 보복이 나 더 심각한 폭력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맞춰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남편의 음주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점차로 음주행위도 방해 하지 않게 되었다.

죽인다고 너무 여러 번 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화났을 때는 제가 안 달려들었으니까 그러지. 아마 달려들었으면 그랬었을 걸요?! <참여자E>

근데 경찰서에 가 갖고 경찰이 이제 물어봤어요. 음... 때린 적이 있냐. 근데 때린 적이 있어. 있다고 말을 하면 아저씨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다. 며칠 동안 집어넣을 거다. 근데 그 상황에 제가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며칠 동안 갖다 오면 뭐 하겠냐 갖다 오면 나 또 맞을 텐데 술 먹고 또 그럴 텐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맞았다는 얘길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좀 싸웠다고만 그렇게 얘길 했어요 <참여자D>

“니가 여기(병원) 한번 있어봐라. 여기 얼마나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을 갖다 병신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두렵잖아요. ‘나와서 또 행패 부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 또 들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리고 뭐 이제 나왔어.<참여자D>

술병에 술도 부어버리고 그러면은 거기 난리가 나요 또 이제... 막 또 크게 싸우고... 술은 엄청... 그 술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참여자A>

폭력의 정도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목격하는 순간 자신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자해한 상처가) 살짝 튀어나오는 살로 아물더라고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징그러웠고.. 그렇지만,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내가 애한테 헤어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음... 얼음 땡이죠. 가만히..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참여자F>

③ 수발자 역할을 함

참여자들은 음주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발자 역할을 맡아야 했다. 참여자들은 남편이 외부에서 음주 후 일으키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 뒷수습해 주거나 금전적 지불로 해결하는 등 술 뒤치다꺼리를 하였다.

구치소 말고 뭐라 그러죠? 유치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술 먹고 나 여기 어딘데 지금 어디 경찰한테 이리로 와, 이런 거. 술 먹고 여기가 어딘지 몰라 나 좀 데리러 와. 술 먹고 택시비가 없어 갖고 나와.<참여자F>

④ 음주상태 행동은 진짜 남편이 아님

음주상태에서 폭력 하는 모습은 진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참여자들은 남편이 음주폭력을 행사할 때 술에 압도된 것이고 이성에 의해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여자D는 남편

이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술이 남편의 절제력을 잃게 하고, 판단력을 마비시켰다고 생각했다. 참여자E는 비음주 상태에서도 폭력이 발생했으나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어서 폭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비교하였다.

술을 먹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감정 절제도 못 하고 화가 올라오면 화가 절제가 안 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감정이 술로 인해서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참지 아니면 어떤 그런 판단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무조건 내가 화나니까 바로 그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나가는 거 같아요, 행동으로.<참여자D>

술을 안 마셨으면 그냥 그렇게 막 심하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더 막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냥 똑같이 소리 지르고 해도 조금 하다 말았겠지. 맑은 정신에 할 때도 하든 말은 좀 많으니까.....그렇게 막 심해지지는 않거든요.<참여자E>

⑤ 고사(枯死)⁷⁾되어감

참여자들은 음주와 폭력이 있거나 없을 때에도 불안, 공포, 자살충동에 시달림으로 삶이 말라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음주폭력의 피해의 악순환 속에 있었다. 남편의 음주와 폭력의 순환과 심화과정에서의 긴장과 불안, 폭력이 발생할 당시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예측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한 마음 졸임 그리고 피해자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경험하면서 흡사 삶 전체가 말라죽어가는 것과 같았다. 남편이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 살기 가득 찬 눈빛, 폭력적 행동, 욕, 폭발음 등은 충동적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했다. 과거에 유사한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를 통해 폭력으로 살해당한 아내에 관한 뉴스를 접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눈이요, 그런 걸 안 썼는데 목소리가 워낙 크고 문을 광광 닫으면서 이 씨팔 것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거에다가 눈을 보면 충혈 되가지고 이글이글 한데다 개(남편)가 여기 굽고 여기 깨고 지 손 저기(칼로 자해)하고... 이런 전적을 본 게 있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참여자F>

마스크에 나오는 뒀... 마누라를 죽여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아마 그런 사람들 성향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 아빠처럼 화나면 못 참고... 그거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자E>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음주폭력은 삶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술 취한 남편을 대할 때, 흥기를 감춰 극단적인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폭력발생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면 음주폭력이 발생하기까지의 긴장감, 불안감, 심장이 쪼그라들 등을 경험하였다.

남편이 술을 먹고 온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왜 찌를 수 있는 도

7) 고사(枯死)의 의미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나무나 풀이 말라 죽음을 뜻함.

구를 감춰두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이거는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불안해서 살면은... 어떻게 안 들어오면 불안불안하고...〈참여자F〉

그러니까 늘 긴장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참여자B〉
하어튼 나한테 어떻게 할까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거 같아요.〈참여자A〉

참여자들이 자신을 되돌아볼 때, 피해가 지속될 미래의 삶을 생각할 때 좌절감, 불안감, 우울증,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자살생각을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늘 불안하고 어느 날은 몸이 아파트에서 반 나가 있고 어떻게 방법이... 산후 우울증도 제 생각엔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B〉

(2) 지역사회에서 음주폭력 다룸

음주폭력 피해와 대처 단계의 '음주폭력의 악순환에 간힘'에서 '지역사회에서 음주폭력 다룸'으로 이동하게 된다. 두 개의 상위 구성요소는 시간이나 경험의 내용상 상호배타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음주폭력을 다루는 과정도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진행되지만 이전 경험과의 차이점은 남편의 음주문제와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도움을 받음으로써 참여자의 인식과 대처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참여자들이 남편의 단주를 도모하려는 방식은 참여자 개인이나 가족이 민간기관으로써 병원이나 상담소, 자조모임을 찾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 폭력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은 사회의 공식적 체계 즉, 경찰,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시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음주폭력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고, 음주폭력 패턴을 조성하는데 참여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회적 도움을 받은 결과로서 참여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 남편이 폭력행동을 자제하려는 노력은 음주폭력피해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음주폭력 다룸'에서의 하위구성요소는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① 음주치료를 도모하기 버거움

참여자A, B, D는 남편의 단주를 목적으로 전문치료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노력이 역부족임을 확인했다. 남편이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댁의 협조가 필요했다. 남편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강제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남편이 음주치료를 받게 하기 까지 참여자들은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설득(->거부(남편 또는 시부모)->치료(남편)->치료중단(남편 또는 시부모)->설득의 과정을 되풀이하였다. 남편의 원가족은 남편의 음주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참여자가 원가족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특히 남편이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된 경우, 시댁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제가 어머니한테 '나는 아들을 살리고 싶다고 내가 이혼하고 싶거나 그러면 이런 모임(알라넌) 가

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약으로든 뭐든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보고 싶다고. 왜냐면 애 아빠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해 보자고 같이 병원을 가요. 술 먹고 난 그 다음 날 시어머니랑 가면 병원에선 선생님이 당장 입원하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중략)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치료하자고, 치료하자고, 아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요원을 부르라고 해 놓고 불렀더니 다시 보내더라고요 아버님이...〈참여자B〉

설득 초기에 남편에게 음주관련 병원치료나 상담을 권유했지만 거부당하거나 남편이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중단하였다. 참여자 A의 경우, 남편이 치료를 권하는 참여자를 오히려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참여자D는 강제입원 후 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남편의 요구에 시댁이 퇴원에 동의하여 치료가 중단되었다.

제가 얘기를 하면 막 핵! “내가 뭐 어때서 병원에 들어가야 하나”고 “니가 들어가라고 니가 정신이 문제니까 니가 들어가야 한다.”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힘들고,〈참여자A〉

애들 할아버지(시아버지)가 써주신 거예요, 또 퇴원서를.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할꺼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족이.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참여자D〉

② 사회적 보호를 적극 활용함

참여자들은 주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직접 찾아갔다. 경찰서의 도움으로 쉼터를 소개받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폭력은 재발하지만 경찰신고가 참여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다 저한테 그런 문제가 닥치니까 무작정 나는 쉼터를 가야 되겠다. 라고 그때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나와서, 경찰서에 가 갖고 나 쉼터를 가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어디를 가야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쉼터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전화를 해 갖고 가게 된 데가 이제 OO쉼터.〈참여자D〉

또 병을 깨 가지고 던졌어요, 저한테. 이렇게 벽에다가 탁! 한 다음에...궁까 저가 계속 못마땅하니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가지고 제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자고 나왔어요, 경찰서 가서.〈참여자E〉

③ 음주 자체가 폭력으로 느껴짐

참여자들은 음주가 폭력을 촉발시키고 심화시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남편이 의도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술은 폭력을 예고하는 하나의 협박이고 무기였다. 참여자F와 참여자E는 술에 취한 남편의 모습이 ‘나 술 취했거든. 건들 지마’, ‘나 술 먹었다. 봐라, 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폭력남편의 음주행위 자체가 폭력의 시작이고 폭력 그 자체로 느껴졌다.

딱 문만 열면 들어오면 야, 나 술 취했거든 건들지 마. 이런 뉘앙스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탁 이렇게 하면... 문을 열고 이렇게 탁 들어오면 나 술 먹었거든? 이제 내 마음대로 할거야. 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갖고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 이제 술 먹었으니까 건들지 말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거야 라는 그 어떤 기운을 안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생각도 안 날 것이고, 테이프 딱 끊겨갖고 저기 할 것이고 나는 미친개처럼.. 개 새끼처럼 할거야. 한번 니네 당해봐...라는 공포감을 줘요.<참여자F>

④ 음주폭력 패턴 조성을 깨달음

참여자들은 남편의 원가족과 본인의 수동적인 대처가 어느 정도 음주폭력 패턴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남편의 원가족의 경우, 음주로 초래된 문제 상황을 대신 해결해주거나 치료과정에 협조하지 못함으로써, 또 참여자의 경우는 술 취한 남편의 요구에 맞춰줌으로써 음주폭력의 패턴화를 조장했다고 보았다.

집에 있는 기물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유리창을 깨서 “나 죽어버리겠다.”고 자기를 자해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공포심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달래야 되니까 그때 당시는 신고하고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집안에서 내가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달래고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런 게 성적으로 관계된 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들기까지 계속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 힘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다 그런 게 그런 패턴으로 반복이 됐던 거 같아요, 술 먹고서.<참여자D>

⑤ 사회적 도움으로 내가 변화됨

피해여성들은 사회적 도움을 받은 후 음주나 폭력에 있어서 인식 및 대처방식이 변화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서 무기력했던 상황에서 내면의 힘을 얻었고,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잘못된 대처를 깨닫고 교정하였다.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인 알라넌(al-anon)을 통해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한 명(참여자 B)이었고,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음주문제에 대한 도움은 찾기 어려웠다.

제가 이제 쉽터에 간 다음에는... 남편은 워낙 보수적인 사람이라 제가 면허증 따는 것까지도 허락을 안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대형 면허도 땀어요, 거기, 1종 면허... 청담동 가서... 그리고 일도 이겨(보험일) 시작해서 그때부터 했고.<참여자E>

이제 술 먹고 전화하거나 뭐 그러면 제가 아예 옛날 같으면 다 듣고 있고 딱 뭐 다 휘둘러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술 먹고 전화 하지마. 아무도 술 먹고 전화하면 받아줄 수 없어’. 끊어버려요. 특히 이제 (남편이) 아이를 많이 찾잖아요. 이제는, ‘이런 모습 아이한테 보여주지마’. 딱 끊어버려요.<참여자B>

알라넌이라는 곳에 다니면서 아~ 이 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때... 그 특징 들을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한 4년 정도 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남들은 다 알콜 중독이래도, 우리 신랑은 알콜 중독이 아니기를 바랬던 거 같아요. (중략) 폭력이라는 것은 다 나빠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다 나쁜데! 그래~도 술 먹고 하는 거는 병으로 전 조금 보여요, 병으로.<참여자B>

⑥ 남편이 폭력행동 자제함

남편은 폭력행동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다. 폭력적인 상황이 재연되려고 할 때 남편 스스로 자리를 피하였다. 남편의 폭력행동 자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경찰에 신고 당한 경험, 수강명령 교육을 받은 경험, 가정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라고 판단하였다.

(남편이 참여자에게) 그따위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등.. 니가 내가 사는 거를 어떻게 아냐는 등.. 별 별 소리를 다 하더니 나가 버린거야..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구.. 나갔다와서는 폭력을 안 하려고 자꾸 피하려고는 하는데.... <참여자C>

폭력이 안 된다는 걸 조금은 느낀 거 같아요. 조금은, 조금. 누구든지 자기 손에 걸렸다 하면 다친 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통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아~ 폭력이라는 게 조금은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구나. 조금 느낀 거 같아요. 아~ 허용이 안 되는구나.<참여자B>

3) 음주폭력 휴지기 단계

(1) 관계 재정립

참여자들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비폭력적 관계로의 재정립을 도모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전 단계에 의하면, 사회적 도움을 받은 결과로서 참여자들은 내면적 변화와 함께 인식과 행동 변화를 경험하였고 남편이 폭력행동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남편에게 내면적 변화보다는 강제적인 사회적 압력에 따라 표면적으로 폭력행동만 자제할 뿐 잠재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자들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미래의 삶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갖게 되지만 여전히 음주문제 미해결로 인해 폭력 재발가능성은 크다고 예상하였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점차로 남편과 자녀중심의 삶에서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는 관계만 유지될 뿐 음주폭력으로 인해 악화된 부부관계는 방치되어 있었고 관계의 질은 향상될 기회가 없었다. 참여자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의 위치에 있음으로써 비폭력적인 관계에 이르고자 하였다. 관계 재정립에서의 하위 구성요소는 다음 <표 2>과 같다.

① 음주폭력 재발을 예상함

참여자들은 남편의 음주폭력행위가 재발될 것을 예상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단주 실패에 있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남편의 내면적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행위의 표출을 자제할 뿐이어서 참여자들은 재발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다. 남편이 단주상태인 참여자A의 경우에도 남편이 다시 음주하게 될까봐 늘 불안했다. 음주와 폭력의 재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흡사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게 좋아지는 거가 아니라요, 못 하고 있는 거지. 잠재되어 있는 거니깐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거지.<참여자E>

남편이 나갔다 와도 어디 나갔다 와도 술 먹고 들어온 거 같아요. 술 안 먹었는데도 저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왜냐면 남편이 4년 동안 맨날 그렇게 술을 먹어 댔기 때문에 술을 끊었다고 해도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중략) 남편이 나가면 전 항상 불안해요 웬지 마음이 술 먹고 들어 올 것 같고 옛날에 항상 나가면 술 먹으려... 술 사 가지고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나가면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불안해.<참여자A>

② 자신의 욕구에 초점 둬

욕구의 초점이 남편에게서 자신에게로 이동하였다. 참여자들은 반복적 음주폭력에 대해 뒤치다꺼리 하는 것에 지쳤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잘못 살아왔다고 후회하였다. 음주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은 자녀양육을 포기하고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에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참여자A는 보호시설로의 분리를 통해 음주폭력의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경험하면서 다시 공포스런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혼 또는 별거 중 남편은 참여자의 약점인 자녀를 미끼로 재결합을 요구하지만 참여자들은 거절하였다.

이제 관여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도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내 인생이 피곤해졌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추슬러야지 남을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D>

내가 참 멍청하게 산 거예요. 내 자신이 멍청하게 살았던 거 같아요. <참여자C>

나오게 되면 물론 애들 보고 싶은 게 가슴이 아프지만(울먹임) 그래도 남편 안 보는데 안 보고 술 먹는 모습 너무 공포스런 모습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참여자A>

③ 남편은 관계 유지만 관심 둬

음주폭력으로 악화되었던 부부관계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은 참여자와의 관계회복이 아닌 관계유지에만 관심을 두었다. 남편은 여전히 음주문제가 있거나 단주를 구실로 삼아 도박, 게임과 같은 영역에서 중독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중독의 대상이 술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을 뿐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변화는 아니었다. 남편은 법적인 이혼 후에도 흡사 부부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관계에 집착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도 남편도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해서 방법을 몰랐고 부부관계는 갈수록 소원해져 갔다.

사이트 운영을 이제 지금 해요. 그런데 하긴 하는데 음...그거는 한 이제 컴퓨터 켜면은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한 8~90%는 게임을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힘든 술을 끊었는데 이제 게임을 새벽 5시까지 하는 걸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그런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중략) 근데 이제 저기 술 안 마시니까 다 게임 같은 거 이제.<참여자A>

④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버둥거림

참여자들은 음주폭력의 피해자에서 벗어나 생존하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할 기회를 엿보거나 남편에게 음주행동, 폭력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었다. 참여자D의 경우,

이혼에 이르러 생존을 도모하지만 남편의 관계 집착이 참여자에게 협박과 통제로 가해져 피해자로 묶어둠으로써 버둥거리게 된다. 이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투명한 유리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도 남편의 통제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느낀다고 회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이혼 상태, 혹은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남편에게 다시 변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모두 음주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 중이었다.

고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도 아무래도 엄마는 기회를 볼 뿐이니까.. (중략) 내가 워낙이.. (남편에게) 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던지고 부스고 때리기도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은 못해요.. 그렇게 해야지 저도 뭔가 끝장이 날거 같아가지고.. 지금 같이 사는 거는 (이혼)기회를 보려고 제가 있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고 싶어서.. <참여자C>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이리고..개.. 인제 헤어지면 살아보지도 못하니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그러고... 살게 됐었어요. 같이.<참여자E>

그러니까 어떤... 어떤 때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벽, 투명한 유리벽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해는 어느 사각 틀에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참여자D>

5. 결론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동시발생으로 인해 여성의 피해가 점차 심각화, 만성화되는 것에 주목하여, 음주폭력피해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후 음주폭력피해과정에서 경험의 의미와 이들의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기존의 관련 연구 및 실천현장에서의 접근은 가정폭력과 음주문제를 이원화하여 독립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면,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피해여성들의 경험 탐색을 통해서 폭력발생과정에서의 음주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음주폭력에 대한 대처, 그리고 여성의 변화를 총체적이고 맥락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음주폭력피해여성의 경험은 시간성과 관계성을 고려하여 혼전 음주폭력 몰이해 단계, 음주폭력 피해와 대처단계, 음주폭력 휴지기 단계로 구분하였고 4개의 상위 구성요소와 18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혼전 음주폭력 몰이해 단계에서는 '음주폭력문제를 간과함'으로 나타났고 하위구성요소로 '음주폭력문제를 경시함', 음주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음주폭력문제를 알아채지 못함'이 도출되었다. 음주폭력 피해와 대처단계에서는 '음주폭력의 악순환에 갇힘'과 '지역사회에서 음주폭력 다룸'으로 나타났다. 먼저, '음주폭력의 악순환에 갇힘'의 하위구성요소는 '극단적 음주폭력의 피해자가 됨', '수동적 대처로 귀결함', '수발자 역할을 함', '음주상태 행동은 진짜 남편이 아님', '고사(枯死)되어감'으로 도출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음주폭력 다룸'의 하위구성요소는 '음주치료를 도모하기 어려움', '사회적 보호를 적극 활용함', '음주 자체가 폭력으로 느껴짐', '음주폭력 패턴 조성을 깨달음', '사회적 도움으로 내가 변화됨', '남편이 폭력행동 자제함'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주폭력 휴지기

단계는 '관계 재정립'으로 나타났고, 하위구성요소로는 '음주폭력 재발을 예상함', '자신의 욕구에 초점 둠', '남편은 관계유지만 관심 둠',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버둥거림'이 도출되었다.

1) 실천적 함의

상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음주폭력을 경험한 피해여성들에 대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음주폭력피해여성들의 경험의 구조는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데 유용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영역과 음주 관련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이 두 가지 문제의 상호관련성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은 다음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음주폭력피해의 실상을 살펴보면 피해여성들은 '극단적 음주폭력의 피해자가 됨', '고사되어감'으로 나타남으로써 생존이 위협받는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점철된 삶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여성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일반 가정폭력피해여성과 다른, 차별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음주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음주폭력 피해여성들이 생존전략으로 수동적인 대처를 선택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저항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생존에 더욱 적합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단계에 따른 경험을 살펴볼 때 음주폭력 피해여성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는 음주와 폭력이 맞물려 발생하는 악순환의 패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스스로 감히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구하는 단계에서 이들은 음주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경험이 전무하거나 실패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음주폭력피해의 실상, 생존하기 위한 수동적 대처, 음주폭력 악순환의 패턴, 음주폭력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도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음주와 폭력의 상관성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위기개입이나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적 개입, 경험의 단계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폭력과 음주의 관련성에 대해 피해여성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폭력발생을 술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지만 폭력단절을 위해 단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폭력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음주폭력배우자에 대한 음주관련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음주폭력 피해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음주상태의 행동은 진짜 남편이 아님'으로 인식했다. 즉, 음주폭력의 발생과정에서는 음주에 초점을 두었고 폭력행위의 원인이 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음주폭력이 만성화되어가면서는 점차로 '음주 자체가 폭력으로 느껴짐'을 통해서 남편의 음주행위를 폭력행위와 일치되는 것으로 느끼게 되었고, 이후에는 폭력에 초점을 두며 음주행위를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는 남편에게 폭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폭력의 책임은 술이 아닌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 Galvani(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술이 폭력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보지만 여전히 단주가 폭력의 빈도나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즉 피해여성들은 폭력단절과정에서 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

있고, 따라서 배우자의 폭력행위를 단절시키고, 폭력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주에 대한 전문적 개입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결과 음주폭력 휴지기 단계 ‘관계 재정립’에서 ‘남편은 관계유지만 관심 됨’에서 나타났듯이 음주폭력으로 인해 피해여성과 배우자 간의 훼손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주폭력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 강화 개입이 필요하다. 휴지기 단계에서 피해여성들은 자아의식이 강화되고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배우자는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서 폭력행동은 자제하지만 여전히 음주문제를 보이거나 또 다른 중독행동을 보였다. 피해여성은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자제하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음주폭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따라서 부부관계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이 시급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음주폭력 휴지기 단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보호관찰소,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이와 같은 실천적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음주폭력피해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축이 필수적이다. 연구결과, 음주폭력피해여성들은 배우자의 음주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보건소 등 음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폭력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경찰과 보호시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높은 관련성에서도 불구하고 도움체계의 이분화로 피해여성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찾아야 했다. 음주폭력피해여성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달체계를 제안한다. 현재의 가정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서비스 체계에서 2차 지원망인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검찰·경찰서비스, 법률서비스에 알코올 치료서비스를 추가하여 음주문제가 가정폭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복지서비스의 세부 영역으로 관련기관에서는 문제음주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폭력적인 배우자의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여성들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차원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음주치료를 도모하기 어려움’, ‘음주폭력제발을 예상함’에서 나타났듯이 배우자의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자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해결된 과제로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는 배우자의 단주치료를 위한 설득->배우자 또는 원가족의 거부->배우자의 치료시도->치료중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단주치료는 시도 자체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치료진입단계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름은 물론, 치료적 변화를 위해서 피해여성에게 많은 부담과 비용이 발생하였다. 설사 음주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도 가정폭력과 별개로 다루어져 비효율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제도적, 법적 개입으로 ‘폭력행위를 자제함’이라는 성과가 있었던 폭력문제와는 달리 행위자의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음주폭력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음주폭력행위자의 경우, 폭력뿐 아니라 음주에 대한 동시개입이 강제명령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음주폭력피해여성을 대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관련 전문가와 음주관련 전문가의 음주 및 가정폭력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참여자D는 '너무나 몰랐죠. 제가. 몰랐죠. 저는 진짜 그때 당시에 이거 알코올 중독이었고 병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대책을 세웠을 거 같아요. 이렇게 이혼까지 안 하더라도'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으나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도움받지 못했다. 현재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실무자 매뉴얼(2004)에 총 교육시간의 10%를 배정하여 음주문제 상담 교육을 운영한 사례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가정폭력상담원 또는 알코올 전문가들이 음주폭력피해여성에 대한 폭력피해나 음주로 인한 피해에 동시개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상호 전문 영역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 보수교육, 심화교육에 음주와 가정폭력 관련 전문지식 및 실천기술을 포함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음주관련 기관과 가정폭력관련 기관 간의 협력적 Co-Work와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 현재 알코올기관에서는 명시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관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코올상담센터 기술지원단(2004)의 음주문제 예방 및 재발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에서 알코올관련 사업의 기능분담표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알코올 문제 예방 차원의 관계기관으로서 알코올 문제 예방 및 아웃리치 상담지원, 사례발견 및 의뢰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옥 외, 2005). 또한 일부 가정폭력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알코올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거나 일방적인 의뢰의 형식으로 관계형성이 되어 있어 긴밀한 상호 협력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분야 간 협력 및 연계를 위해서는 상호 간 필요를 재분석하고 구체화하여 예방적 차원뿐 아니라 치료적인 역할에 있어서의 공유와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간의 이해가 필요하며, 협력을 위한 협의체 결성 및 명료한 책무규정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피해여성 및 음주폭력행위자의 원가족은 음주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음주폭력문제에 조기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혼전 음주폭력 몰이해 단계에서 '음주폭력문제 간과함'이 나타났다. 피해여성은 혼전에 피해를 직접 경험하였으나 음주에 지나치게 허용적인 한국문화, 음주폭력가정에서 성장하여 음주폭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인식을 갖고 문제를 간과한 채 결혼하였다. 마찬가지로 음주폭력행위자의 원가족도 음주폭력의 악순환에 기여하여 왔고, 알코올치료를 협력하지 못함으로 인해 음주폭력문제를 심각화, 만성화하였다. 따라서 음주문제에 대한 조기대처를 위해서는 음주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국민을 대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음주에 대한 인식 개선, 음주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수미, 김주현(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중매체는 피해여성들이 폭력피해보호체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효과적인 통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음주폭력피해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험의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음주관련 전문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음주폭력피해여성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승권·조애저. 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옥·유채영·이인정·최해경. 2005. 『가족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 김재엽. 1995. “가정폭력의 실태와 임상개입에 관한 연구 : 재미한인가정을 중심으로”. 연세 사회복지 연구, 2: 86-107.
- 김현희. 2006. “가정폭력행위자의 보호처분경험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혜련·조영희. 2000. “학대받는 알코올 중독자 부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 과학회지』 1(1): 72-78.
- 박소현·김병진. 2002. “가정폭력 실태 및 의식조사”. 『가정상담』 227: 5-9.
- 신경림 역, 1997. 질적간호연구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경림·공병혜. 2001. 『현상학적 연구』. 현문사.
- 윤명숙. 1988. “알콜중독자의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채영. 2002. “가정폭력행위자의 문제음주 변화동기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사회복지연구』 20: 85-116.
- 유채영. 2008. 『가정폭력과 음주문제의 통합서비스,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장수미. 2004.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가해자 폭력행동감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1): 103-126.
- 장수미·김주현. 2005.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찰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 127-160.
- 장수미. 200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와 영향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152-174.
- 조미숙. 2002. “가정폭력 가해자의 알코올중독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1): 102-110.
- 조성민. 2009. “음주문제와 가정폭력 공존문제자의 특성 및 재발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가정폭력 발생원인의 이론과 실제”. 『보건사회연구』 19(1).
- 현진희. 2010. “노인 배우자의 음주문제와 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1(1): 89-10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4.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실무자 매뉴얼』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7.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프로그램 실무자 매뉴얼 : ‘가정폭력 Zero세상’ 우리 만들어가요!』
- Anderson, S. M., Boulette, T. R. and A. H. Schwartz. 1991.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R. T. Ammerman, and M. Hersen(eds.), *Case Studies in Family Violence*. New York: Plenum.
- Bennett, L., and Williams, O. 2003. “Substance abuse and men who batter: issues in theory and

- practice." *Violence against women* 9: 558-575.
- Brokoff, D., O'Brien, K., Cook, C., Thompson, T. and Williams, C. 1997.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domestic violence: assessment at the scene of domestic assaul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7: 1369-1373.
- Easton, C., Swan, S., Sinha, R. 2000. "Motivation to change substance use among offender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9(1): 1-5.
- Fals-Stewart, W. 2003. "The occurrence of partner physical aggression on days of alcohol consumption: A longitudinal diary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1): 41-52.
- Galvani, S. 2006. "Alcohol and Domestic Violence: Womens Views," *Violence against women* 12(7): 641-661.
- Gilchrist, E., Johnson, R., Takriti, R., Weston, S., Beech, A., and Kebbell, M. 2003. *Domestic violence offenders: characteristics and offending related needs*(findings 217). London: Home Office.
- Gondolf, E. 1999. "Characteristics of court-mandated batterers in four cities: diversity and dichotomies." *Violence against Women* 5(11): 1277-1293.
- Graham, K., Plant, M., and Plant, M. 2004. "Alcohol, gender and partner aggression: A general population study of British adult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2: 385-401.
- Humphreys, C., Thiara, R. K. and Regan, L. 2005. *Domestic violence and substance use: overlapping issues in separate services?*. Briefing report, London, Greater London Authority.
- Johnson, H. 1996. *Dangerous domains: violence against women in Canada*. Ontario.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 Katherine S. van Wormer. 2007. Domestic Violence and Substance Abuse: An Integrated Approach, in Albert R. Roberts(3rd ed).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intervention strategies and treatment program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LC.
- Leonard, K. E., and Jacob, T. 1987. Alcohol, alcoholism and family violence. In V. D. Van Hasselt, R. L. Morrison, A. S. Bellack, and M. Hersen(Eds.), *Handbook of family violence*. New York: Plenum. 383-406.
- Leonard, K. E., and Quigley, B. M. 1999. Drinking and marital aggression in newlyweds: An event-based analysis of drinking and the occurrence of husband marital aggression *J. Stud Alcohol* 60: 537-545
- Miier, W. 1983. "Motivational interviewing with problem drinkers." *Behavioral Psychotherapy*, 11, 147-172.
- Mouzos, J. 2005. Homicide in Australia 2003 - 2004 National Homicide Monitoring Program Annual Report,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66, p.17
- O'Farrell, T. J., and Murphy, C. M. 1995. "Marital violence before and after alcoholism treatment."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63(2): 256-262.
- Peralta, R., and Tuttle, L., and Steele, J. 2010. "The interaction of interpersonal violence, masculinity and alcohol use." *Violence against Women*, 16(4): 387-209.
- Pernanen, K. 1991. *Alcohol in Human Violence*. NY: Guilford.
- Prochaska, J. O., and DiClemente, C. C. 1992. *Stage of change in the modification of problem*

- behavior*. In M. Hersen, R. M. Eisler, & P. M. Miller(ed). *Progress in behavior modification* 28. Sycamore Publishing, 184-218.
- RADAR. 2009. *Are Abuse Shelters Helping the Tru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Respecting Accuracy in Domestic Abuse Reporting*(RADAR), Westfield, New Jersey, 1-20.
- Rennison, C., and Rand, M. 2003. *Criminal Victimization 2002*. U.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Roberts, A. R. 2007.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intervention strategies and treatment programs*(3rd ed). Springer Publishing Co.
- Rodgers, K. 1994. "Wife assault: the findings of a national survey." *Juristat Service Bulletin* 14: 1-22.
- Roy, M. 1982. *The abusive partner: an analysis of domestic battering, in alcohol, drug, and partner abuse*, Roy, M.(eds.) NY: Van Nostrand and Reinhold company.
- Saunders, D. 1996. "Feminist-cognitive-behavioral and process psychodynamic treatments for man who batter: interaction of abuser traits and treatment mode." *Violence Victims* 11(4): 393-413.
- Slade, M., Daniel, L. and Heisler, C. 1991. "Application of Forensic Toxicology to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orensic Science* 36: 708-713.
- Tjaden, P. and Thoennes, N. 2000. *Extents, nature, and consequences pf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State of Hawvaih,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FY. 2008.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 Grant Application*. February 2008.
- Thompson, M. and Kingree, J. 2006. "The Roles of Victims and Perpetrator Alcohol Use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2): 163-177.
- Traft, C., Murphy, C., Elliott, J., and Morrel, T. 2001. "Attendance-enhancing procedures in group counselling for domestic abus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1): 51-60.

Co-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Drinking Problem

- What is Experiences of Female Victims? -

Kim, Ju-Hyun

(Kyung Hee Cyber University)

Jang, Soo-Mi

(Cheongju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female victims who had abused by alcohol-abusing spouse. The results were deducted from in-depth interview with 10 female victims by utiliz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of research showed that experiences of women could be classified in three stages.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stage, "ignorance of drunken violence" had appeared. "Confinement of vicious circle of drunken violence" and "dealing with drunken violence in the community" had been found from the coping stage. Finally, from the resting stage "re-defining of the relationship" had been drawn.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Co-occur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drinking problems, female victims, alcohol-abusing spouse,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논문 접수일 : 11. 03. 01, 심사일 : 11. 03. 09, 게재 확정일 : 11. 04. 05]